

지역 농축산물 구매 말로만 하나

LED 장비 개발 500억 투입

광주 YWCA, 대형유통업체 점유율 조사

대형마트 11%, SSM 25%, 백화점 29%

쌀·무·쇠고기 등 타지역 생산품 더 팔아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농축산물 5개 상품 가운데 지역 생산품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민들이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 주산지에 거주하면서도, 타지역 생산품을 더 많이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광주 YWCA는 16일 “광주지역 백화점·대형 마트·SSM(기업형 슈퍼) 등 모두 25곳에서 17개 품목을 선정해 지역상품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생산품은 비중은 21.5%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소비자 모니터 요원 15명이 5월 27일~6월 7일까지 대형 마트 13

곳(2천91개 상품), SSM 9곳(1천176개 상품), 백화점 3곳(292개 상품)을 직접 방문해 쌀·오이·배추·양파·무·닭·돼지고기·쇠고기·달걀·두부·햄·고추장·사과·배·방울토마토·참외·수박 등 다소비 식품 17품목의 지역 상품 비중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종별 지역상품 점유율은 대형 마트가 11.2%에 그쳐 민관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SSM 24.7%, 백화점 28.7% 순이었다.

이는 지난 3월 청주YWCA가 실사

한 조사에서 나온 청주지역 대형유통점 지역상품 점유율(대형 마트 26.1%, SSM 35.8%)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형 마트의 지역 상품 점유율은 쌀(32.3%), 오이(30.7%), 쇠고기(31.5%), 방울토마토(38.3%) 등 4가지 품목이 평균치를 넘었지만 돼지고기(18.9%), 계란(13.2%), 두부(5.2%), 배추(17.4%) 등 총 9개 품목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SSM의 경우 쌀(64.3%), 양파(43.5%), 쇠고기(37.5%), 계란(33.6%), 배(55.6%), 방울토마토(32.3%) 등 총 6개 품목이 30%를 웃도는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배추(6.7%), 무(11.1%), 닭(10.7%), 두부(18.3%), 햄(6.9%), 고추장(19.8%), 사과(0.0%) 등 7개 품목이 평균치인 21%를 밑도는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백화점은 품목별 취급 제품의 종류가 적어 지역 상품의 점유율이 큰 편

차를 보였다. 쌀·양파·계란 등은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쇠고기·돼지고기·햄·사과·참외·수박 등은 지역 상품이 없거나 평균 점유율이 10% 미만이었다.

광주 YWCA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도 지역산품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추진,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각종 구매 및 용역발주에 지역업체 선정 등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는 100% 전남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데, 광주지역 백화점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경부, 국산화 박차 ... 광주 관련산업 청신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장비 개발에 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LED 장비를 국산화해 국내 LED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지역 LED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될 듯하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삼성LED 등 4개 관련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LED 장비-수요업체 상생협력 선도식’을 열고 LED 장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LED 칩 제작 공

정의 핵심장비인 MOCVD(유기금속 화학증착 장비) 양산 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한편 공정자동화 시스템 도입, 고속 패키징·검사장비 개발 등 3개 분야에 모두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미국과 독일 2개국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MOCVD의 국산화를 통해 장비·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LED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10년 6인치 시제품을 개발, 2011년까지 상용화하고

2012년에는 8인치 시제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수요·장비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요기업이 구매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우대토록 하고, 관련기업 모임인 ‘LED 장비 선진화 클럽’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LED 장비산업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오는 2011년까지 LED 장비 국산화율을 40%로 높이면 5천440억원의 수입 대체 및 2천억원의 수출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세계 LED 시티’ 참여

세계 3대 LED조명 기업인 미국 크리(CREE) 임원진이 16일 광주 시청을 방문, 최종만(오른쪽 세번째)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 ‘LED CITY’사업 참여를 기념하는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LED CITY’사업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효율 조명제품으로 교체해 저비용 친환경 조명제품 사용을 권장·홍보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돼지 대신 닭?

신종플루 영향 ... 호남지역 닭 사육수 36% ↑

2분기 돼지 사육은 236만마리 ... 1.7% 감소

따른 돼지 시세 하락과 최근 환율 안정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부담 등이 원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돼지 사육농가 수는 2천400가구로 소규모 농가의 사료비 부담 등

때문에 폐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 분기보다 1.5%, 작년 동기보다 4.7% 감소했다.

이에 반해 닭 사육 마릿수는 4천917만마리로 전 분기의 3천615만마리에 비해 36%, 사육가구 수는 1천100가구로 26.5% 늘었다.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75만8천마리로 전 분기(73만4천마리) 대비 3.3%, 작년 동기(70만6천마리) 대비 7.3% 각각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제유가 배럴당 80弗대 상승”

무역協, 하반기 강세 전망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유가를 하반기 중에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6일 ‘금년 상반기 국제유가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유가는 세계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험세를 보이겠지만, 취약한 수급상황과 경기회복 가능성에 의해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유동성과 달러화 절하 추세에 따라 원유에 유입된 투기자금이 유가 상승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년 말 본격적인 경기개선 징후가 보이면 유가 상승이 가속화돼 배럴당 8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노고단에 아웃도어 의류 매장

해발 1,100m ... 국내에서 가장높아

LG패션의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는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휴게소 옆에 66㎡(20여평) 규모의 매장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해발 1천100m에 자리한 이 매장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매장이라고 LG패션은 전했다.

지리산 3대 주봉 중의 하나인 노고단은 연간 83만명이 방문하

는 곳으로, 국내 산악인들 사이에서 큰 상징성을 지닌 곳에 매장을 열어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라푸마는 지리산 등산객들을 위한 랜턴 대여 서비스, 우의 지급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심야 빛 독촉 못한다

다음 달부터 심야에 빛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도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빛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빛을 갈도록 강요하거나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으로 오인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다른 법률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432.22 (+11.36)
▼코스닥지수
482.28 (-4.39)
▲금리 (국고채 3년)
4.03% (+0.04)
▼원·달러 환율
1,265.70원 (-12.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2630,21466	대2630,21466
아산시 대2630,21466	대2630,21466
충청남도 대59,21236	대59,21236
대전광역시 대53,21193	대53,21193
충청북도 대167,21086	대167,21086
충청남도 대190,21103	대190,21103
충청남도 대1380,21287	대1380,21287
충청남도 대183,21259	대183,21259
충청남도 대23549,2190	대23549,2190
충청남도 대790,21160	대790,21160
충청남도 대102,21425	대102,21425
충청남도 대269,21870	대269,21870
충청남도 대802,21367	대802,21367
충청남도 대211,21008	대211,21008
충청남도 대80,21106	대80,21106
충청남도 대72,2155	대72,2155

주택/세개별	경이사 010-5878-0005
소재지 대54,2130	대54,2130
충청남도 대36,2145	대36,2145
충청남도 대46,2158	대46,2158
충청남도 대54,2152	대54,2152
충청남도 대48,2180	대48,2180
충청남도 대64,2131	대64,2131
충청남도 대52,2155	대52,2155
충청남도 대102,214	대102,214
충청남도 대32,2134	대32,2134
충청남도 대42,2123	대42,2123
충청남도 대45,2172	대45,2172
충청남도 대43,2148	대43,2148
충청남도 대62,2153	대62,2153
충청남도 대144,2134	대144,2134
충청남도 대88,2138	대88,2138

근린주택	순천에서 010-8611-2817
소재지 대124,2128	대124,2128
충청남도 대124,2128	대124,2128
충청남도 대119,2186	대119,2186
충청남도 대53,21238	대53,21238
충청남도 대61,2155	대61,2155
충청남도 대53,2183	대53,2183
충청남도 대31,2148	대31,2148
충청남도 대107,2183	대107,2183
충청남도 대41,2172	대41,2172
충청남도 대45,21383	대45,21383
충청남도 대78,2168	대78,2168
충청남도 대163,2158	대163,2158
충청남도 대38,2116	대38,2116
충청남도 대206,2181	대206,2181

미려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급”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산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
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 사실분과 원오실
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
니다.